

가사노동의 모녀간 세대전달*

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ousehold works
from mothers to married daughters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 수 이 연 숙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 경 은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Prof. : Lee, Yon Suk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Park, Kyung-E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household work was transmitted from mothers to their married daugh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mothers reported generally higher scores than their married daughters regarding the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of household work with an exception in the usage level of home equipments.

Second, married daughters'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of household work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ose of mothers. The highest correlation was found in the usage level of home equipments and the lowest correlation was in the amount of time using household work helper.

Third, married daughter's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of household work were

*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mothers. It was especially so in daughter's usage level of home equipments.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existence of 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ousehold work from mothers to their married daughters with regard to its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1. 서론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서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차적인 집단이며, 이러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이 가사노동이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사노동은 많은 부분이 반복되어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특성 때문에 가정의 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전승하는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기능을 하게된다(박인경, 1986). 이러한 가사노동의 교육적이고 상호이해적인 특성은 가사노동의 성격 중 매우 긍정적인 측면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사노동이 가정내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자녀는 부모를 동일시하여 부모의 행동과 성격을 내면화하면서 성장하게 되므로, 가사노동 기술의 많은 부분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부모로부터 습득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는 아들보다는 딸에게 있어서 동일시의 대상이자 역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시와 모방을 통한 딸에 대한 가정내 사회화 과정은 예로부터 가사노동을 익히고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어머니가 딸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사노동의 기술과 기술을 가르쳤었다는 조선시대 여러 규범서의 내용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이길표와 주영애, 1992). 모녀관계를 여성학적으로 접근한 박신규(1992)의 연구에 의하면, 전문직 여성인 딸의 경우 성장기와 미혼기를 거치면서 어머니와의 거리감이 생기는데 그 거리감은 딸이 결혼하여 출산, 양육을 하게 되는 다중 역할시기에 들어서야 좁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두 여성이 모두 어머니.어머니라는 공유감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공유감 형성을 가사노동의 입

장에서 본다면 공유감 형성은 가사노동의 교육적이고 상호이해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모녀간의 가사노동을 통한 상호작용이 다양한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김성희, 1996). 이러한 상황은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나 수행방식이 '윗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원간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이고 상호이해적인 측면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딸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수행능력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가사노동 연구는 가사직업장에 대한 연구, 가사노동 시간, 가사노동 태도 및 만족도, 가사노동 분담, 가사노동 사회화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가사노동의 세대전달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에 와서야 이와 관련된 연구가 소수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지금수, 1990; 지금수와 계선자, 1993; 지금수, 1994)은 포괄적인 가정관리 능력이 모녀간에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사노동의 어떤 영역이 어떻게 세대간에 전달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다양한 측면이 어머니와 기혼딸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달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세대간 전달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규명하고 가정에서

의 효율적인 가사노동 습득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사노동의 개념

1) 가사노동의 정의 및 기능

가사노동에 대한 정의는 학문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을 가정학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가정학적 관점에서 가사노동을 보았을 때 가사노동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가정생활의 유지기능이다. 가사노동은 의·식·주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신적·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다(박인경, 1986; 조미환, 1996).

둘째, 기술습득과 교육의 기능이다. 가족은 가정생활을 운영하면서 가사노동을 적절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가며, 가사노동을 통해 자녀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대인관계의 기술, 태도, 가치 등의 학습이 이루어진다(조미환, 1996). 윤숙현(1998)은 가사노동의 이러한 가정교육적 측면이야말로 가사노동이 가진 가장 긍정적인 의미라고 하였다.

셋째, 가정문화의 창조와 전달기능이다. 윤숙현(1996)은 가사노동은 하나의 '문화'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사노동은 가정이라는 생활의 장에서 매일 반복되면서 계속 이어지며, 그러한 과정에서 가족공동문화를 창조하고 각 가정의 독특한 가정생활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승하게 된다(박인경, 1986; 大森和子의 3인, 1981, 조미환 1995에서 재인용).

2) 가사노동의 영역

가사노동의 영역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류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학자마다 영

역명칭은 다소 상이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가사노동의 영역을 의·식·주생활 관리와 가족관리, 경영 및 장보기 등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가사노동 종류를 포함시키고 있다(윤복자, 1975; 서영숙과 조필교, 1976; Walker와 Woods, 1976; 안영희, 1977; 김외숙, 1981; 이정수, 1984; 이승미, 1989; 정영금, 1988).

이러한 가사노동 분류에 쟁점이 되는 문제는 첫째, 가사노동 영역에서 자녀양육을 가사노동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둘째, 가사노동 영역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 셋째, 각 가사노동 영역에 속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녀간의 가사노동 세대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사노동과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세대전달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연구자가 판단한 가사노동을 각 영역별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 식생활 영역 - 일상적인 식사준비(밥하기, 반찬 만들기), 손님초대를 위한 특별음식 만들기, 김치·장담그기나 밑반찬만들기, 설거지, 상차리기

② 주생활 영역 - 집안청소, 주택손질(간단한 집손질, 가구, 전구 등), 집안꾸미기, 집안의 화초가꾸기 및 정원손질

③ 의생활 영역 - 세탁, 다림질(정리와 다림질), 바느질(옷수선), 옷만들기(재봉틀, 손바느질, 수편물 등)

④ 가족돌보기 영역 - 신체적 자녀돌보기, 비신체적 자녀돌보기, 다른 가족원돌보기(남편·웃어른 시중, 출근준비 등)

⑤ 가정경영 영역 - 가정의 계획세우기, 가계부기록, 은행 및 관공서 출입, 장보기(시장이나 상점에서 식료품과 일용품사기, 전화주문, 의복, 가구, 가전제품 구입)

2.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

가사노동의 모녀간 세대전달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전달대상이 되는 가사노동의 과정의 특징이 가치 혹은 정서적 측면과 구체적인 수행측면으로 나누어지므로 크게 가사노동 의식과 수행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사노동 의식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의식에 가사노동관과 가사노동 선호도를 포함시켜 이러한 가사노동 의식의 모녀간 세대전달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사노동관

가사노동관이란 가사노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의 가사노동관은 선행연구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수준, 가치의식, 만족도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가사노동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교적 우리나라 주부들이 대체로 가사노동을 만족해하고 주부의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박인경, 1986; 장명옥, 1976; 임정빈과 김명희, 1984; 조필교, 1977, 서창원, 1984).

그러나, 최근에 실시한 중고생의 가정생활 가치관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학생들은 가사노동을 온 가족이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학생들도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을 잘 알아야 하며, 여성이 직장이 없더라도 가사노동을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근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한정희와 최동숙, 1995), 세대에 따라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가사노동 선호도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는 가사노동의 전반에 대한 감정, 개별 가사작업에 대한 감정 및 가사노동의 수행표준에 대한 감정이 포함되는데(Gross, Crandall 과 Knoll, 2980),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사노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다른 연구들의 가사노동 태도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가사노동의 태도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체로 우리 나라 주부들은 가사노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가사노동 영역별로는 그 차이를 보였다(김외숙, 1981, 1984; 김연화와 이정우, 1986; 이기숙, 1982).

한편 김애련과 채옥희(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딸의 가사노동 태도가 각각 조금씩 달랐으나 특별주택손질, 정원손질, 신체적 가족돌보기 영역에서는 어머니의 가사노동 태도가 딸의 가사노동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특별주택손질에서는 어머니가 싫어함에 따라 대체로 딸도 싫어했고, 정원손질이나 신체적 가족돌보기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좋아함에 따라 대체로 딸도 좋아하는 경향을 보였다.

2) 가사노동 수행과정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수행과정에 가사노동 능력, 가사노동 표준, 가사고용인 사용시간, 가정기기 소유 및 사용을 포함시켜서 이러한 가사노동의 수행이 세대간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이에 대한 개념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가사노동 능력

능력이란 어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사노동 능력은 주부가 가사노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즐기는 일이나 기술이 있는 일을 더 많이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 능력은 가사노동 수행에 대하여 하나의 자원으로 기능한다(이은주, 1991). 가사노동 능력은 특정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감에 영향을 주며(Wheeler, 1984), 가정관리 능력의 하위영역 중 하나로서 가사노동이 포함된다고 보았을 때" 가정관리 능력은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김경숙과 이정우, 1993 ; 김경숙과 이정우, 1995), 가사노동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관리 능력을 계획, 창의, 소비, 가사작업, 평가, 인간관계의 6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미혼딸의 가정관리 능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를 연

1) 가정관리능력은 크게 '자원을 사용하는 과정'과 '관리행동'의 관점으로 파악하는데, 가사노동은 '관리행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정관리능력의 하위영역에 포함된다(이영미와 이길표, 1984).

구한 지금수(1990)에 의하면, 미혼딸의 가정관리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가정관리 능력이었으며, 그 하위영역인 미혼딸의 가사작업 능력에도 어머니의 가사작업 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는 미혼딸이 평상시 그 어머니의 가정관리 행동을 지켜봄으로써 의식,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가정관리 능력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혼딸의 가사작업 능력도 어머니의 가사작업 능력이 높을수록 뛰어났다(지금수, 1994).

(2) 가사노동 표준

본 연구에서 가사노동 표준은 각 가사노동의 하위영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생산물표준'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러한 가사노동의 표준이 세대전달 될 수 있는 가사노동의 한 수행과정이 될 수 있는지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표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성은, 1991), 전문직이나 비전문직에 상관없이 취업주부보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수행표준이 높으며(이승미, 1989),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적응력이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수행표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선, 1995). 그러나 Robinson과 Milkie(1998)의 연구에 의하면 30살 미만의 여성들이 중년기의 여성들보다 집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딸의 표준은 어머니의 가사노동을 딸이 어려서부터 보아오면서 어머니의 기대수준에 대한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사노동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가사고용인 사용시간

본 연구에서 가사고용인 사용시간은 가사노동을 위한 고용인을 사용하였을 때, 일주일에 고용인을 사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낸다. 이기영(1987)은 산업화에 따라 가정용역의 공급량이 감소되고 이에 의해 용역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고용인 사용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가정부 대

신 시간제 파출부 형태의 가정고용인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실제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지지되고 있었다(강신주 외 2인, 1968; 유영주, 1977; 정연주와 문숙재, 1987; 이은경, 1992).

이러한 가사고용인 사용을 세대전달과 관련시켜보았을 때, 가사고용인이 있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머니의 가사노동을 보고 배울 기회가 적으므로 모녀간의 가사노동 일치도가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고용인 사용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어머니가 가사고용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딸은 어머니가 그렇지 않았던 딸보다 가사노동 수행시 시간제약을 줄이기 위한 가사노동 간소화의 방안이나 역할과중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가사고용인 사용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수행과정 또한 역시 세대전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가정기기 소유 및 사용

가정기기 소유 및 사용에 관해서는 세대전달의 가능성을 파악할 만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정기기 소유 및 사용의 세대전달 가능성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가 가정에서 다양한 가사노동 기기를 사용할 경우 딸은 다양한 가정기기에 쉽게 노출되며 때로는 자신도 그 기기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고 이에 대한 편리함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장과정의 경험이 결혼후 자신의 가사노동 수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기기의 소유 및 사용도 세대전달의 대상이 되는 가사노동의 한 수행과정에 포함시켰다.

3. 가사노동의 세대전달

1) 세대와 세대전달의 개념

'세대'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고 있으며 상황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 가정 가족내에서 어머니와 딸간에 일어나는 세대전달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부모세대', 혹은 '자녀세대'와 같이 가계 계승의 원리(Principle of kinship decent)로서의 세대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행동하고, 느끼고, 관계를 맺고, 현실을 규정하고, 친근감이나 거리감에 대처하는 양식과 같은 것들이 전달되는 것을 '세대 전달'(generational transmission)이라고 한다(Burr 외 2인, 1993, 최연실 외 5인 역, 1995). Troll과 Bengston (1979)은 세대전달이 공동체 영역보다 가족영역에서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에서 세대전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모-자녀관계의 특질에서 찾을 수 있다. 김재은(1974)은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자녀라는 서로 다른 세대간의 관계로서,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관계라고 하고 있다. 가족내 세대인 부모-자녀관계가 갖는 성격과 이를 통한 가정교육의 기능에는 이미 세대과정의 개념이 수반되어 있다.

Millar(1961)는 가치관과 시간, 금전, 가사노동 기술 등의 자원에 대한 가정관리 유형이 3세대간에 전달되는지를 보았는데,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많은 가치들이 3세대를 통해 전달되며, 가정관리 패턴에서는 윗 세대의 관습보다 자신들 세대의 관습을 더 따랐다. 그러나, 가사노동 기술에 대한 관리에서 3세대간에 어떤 공통적인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딸이 어머니로부터 기술을 습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자녀관계의 호혜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애착관계 또한 조모-모-자녀의 3세대간에 전이되고 있었다(조병은 외 8인, 1995).

2) 모녀간의 세대전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회화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육으로도 이루어지지만 부모는 자녀의 생활모델로서 모방과 동일시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녀는 동일시를 통하여 부모의 도덕성이나 성격구조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하게 된다(지영숙 외 2인, 1996).

Freud는 5살까지 맡아서 기르는 어머니의 육아방식에 의해 아이의 성격이 고정된다고 하여 자녀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지영숙 외 2인, 1996에서 재인용), 특히 어머니와 딸은 부계가족에서 낮은 위치에 있으므로 서로 동정하게 되고 여자

로서 생활영역이 같으며 관심이 같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유영주 외 2인, 1996), 일반적으로 동성의 부모는 동일화의 대상으로 역할모델을 형성하게 되므로 딸은 어머니를 역할모델로 어머니의 행동과 역할을 모방하고 동일시하게 된다.

따라서, 딸은 가사노동 수행자로서의 어머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가사노동을 배우며 동성인 자신도 가사노동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여성이 가사노동의 수행자라는 보편적인 인식으로 인해 딸에게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위의 역할기대가 생기고 그와 병행되는 훈육이나 가정교육 등을 통해서 그 역할의 수행이 강화되어 가사노동을 습득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딸은 어머니를 돕는 조수로서 일찍부터 요리, 침선, 방적, 육아, 예절 등을 어머니로부터 실생활에서 배우고 실습하며, 어머니를 모방하고 동일시하면서 여성의 모든 역할과 필요한 지식, 기능과 태도를 배웠다(김애련과 채옥희, 1996). 오늘날의 경우에도, 과거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딸이 아들보다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딸이 식사관리와 주택청소의 영역에 주로 참여하는데 반해 아들은 가족관리와 주택·뜰·자동차·애완동물 관리인 특별한 주택관리에 주로 참여하여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시간과 영역에 성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수와 고정애, 1985).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가사노동에서 모녀간 세대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모녀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모녀 간의 가사노동 의식 및 가사노

동수행과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가사노동 수행과정이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 과정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과 그 여성의 친정어머니이다. 설문지는 기혼딸을 중심으로 배부되었고, 기혼딸은 자기기입식으로, 친정어머니는 딸이 어머니를 방문하여 어머니가 직접 기입하거나, 전화로 인터뷰하여 그 결과를 딸이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조사원의 인터뷰와 연구자의 인터뷰도 병행되었다. 30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질문지를 수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총 561쌍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이 중 415쌍이 회수되어 약 7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에서, 부실기재된 것이나 친모녀간이라고 판단되기 어려운 질문지를 제외시키고 총 375쌍의 질문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3. 척도의 구성 및 측정방법

1) 가사노동 의식

(1) 가사노동관

가사노동관은 가정노동에 대한 인식, 주부역할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의식, 가정노동의 특성에 대한 의식, 사회화나 교육에 의한 주부역할의 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영금(1989), 박인경(1986) 등이 사용한 척도를 기초로 6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정말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가사노동관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6개 문항으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값으로 측정하였는데, 친정어머니는 .81이고 기혼딸은 .77이다.

(2) 가사노동 선호도

가사노동 선호도는 한경미(1987), 정영금(1989)의 척도를 기준으로 식생활 영역의 5개, 의생활 영역의

4개, 주생활 영역의 4개, 가족돌보기 영역의 3개, 가정경영 및 장비의 4개 항목 등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매우 좋아한다'(5점)에서 '매우 싫어한다'(1점)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가사노동을 더욱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친정어머니는 .86, 기혼딸은 .86이다.

2) 가사노동 수행과정

(1) 가사노동 능력

가사노동능력은 한경미(1987), 이미선(1991)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매우 잘한다'(5점)에서 '매우 못한다'(1점)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클수록 가사노동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친정어머니는 .89, 기혼딸은 .87이다.

(2) 가사노동 표준

가사노동 표준 척도는 이미선(1995)의 척도를 참고하여,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언제나 철저히 한다'(5점)에서 '언제나 대충하는 편이다'(1점)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표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친정어머니는 .90, 기혼딸은 .89로서 신뢰도 계수는 모두 높다.

(3) 가사고용인 사용시간

가사고용인 사용여부와 고용시간은 정영금(1989)의 연구를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숙식을 같이하는 가정부를 고용', '파출부를 고용', '고용하지 않음'의 세가지로 나누고, '파출부를 고용'에는 일주일에 오는 횟수와 시간을 적도록 하여 이것을 서로 곱해서 고용시간을 계산하였다. '숙식을 같이하는 가정부'의 경우 1일에 10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70시간으로 간주하였고, '고용하지 않는 경우'는 0시간으로 간주하였다.

(4) 가정기기사용

이승미(1989), 정연주(1987)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세탁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재봉틀, 컴퓨터의 가정기기의 소유여부와 사용정도를 물어보았다. 사용정도는 '항상 사용한다'(4점), '자주 사용한다'(3점), '가끔 사용한다'(2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클수록 가정기기를 더 많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분석은 Spsswin 7.5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α 값을 구하였고, 각 가사노동의 의식과 수행과정에 대하여 어머니와 딸이 어떤 관계가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모녀간 가사노동 세대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조사에서는 375쌍의 기혼딸과 친정어머니를 최종분석에 포함시켜 조사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친정어머니				기혼딸			
	구분 (친정어머니)	빈도 (명)	비율 (%)		구분 (기혼딸)	빈도 (명)	비율 (%)
연령	1)40대(~49세)	15	4.0	연령	1)20대(~29세)	136	36.4
	2)50대(50~59세)	177	47.2		2)30대(31~39세)	178	47.6
	3)60대(60~69세)	125	33.3		3)40대(41~49세)	47	12.6
	4)70대이상(70세~)	58	15.5		4)50대이상(50세~)	13	3.5
	계	375	100		계	374	100.1
	평균(SD)	60.71(8.21)			평균(SD)	33.11(6.85)	
학력	1)초등학교 졸업 이하	100	26.7	학력	1)중학교 졸업이하	5	1.4
	2)중학교 졸업	84	22.5		2)고등학교 졸업	85	22.8
	3)고등학교 졸업	128	34.2		3)전문대졸및대학중퇴	56	15.1
	4)전문대졸및대학중퇴	14	3.7		4)4년제 대학졸	168	45.2
	5)4년제 대학 졸업	48	12.8		5)대학원졸	58	15.6
	계	374	100		계	372	100
	평균(SD)	2.55(1.31)			평균(SD)	4.51(1.06)	
직업종류	1) 관리·전문직	28	7.6	직업종류	1) 관리·전문직	126	34.9
	2) 기술직	6	1.6		2) 기술직	15	4.2
	3) 사무직	2	0.5		3) 사무직	34	9.4
	4) 판매·서비스직	19	5.1		4) 판매·서비스직	12	3.3
	5) 단순노무직	13	3.5		5) 단순노무직	3	0.8
	6) 없다	302	81.6		6) 없다	171	47.4
	계	370	99.9		계	361	100
월평균 수입	1)100만원이하	78	22.8	월평균 수입	1)100만원이하	18	5.1
	2)101~200만원이하	101	29.5		2)101~200만원이하	144	41.1
	3)201~300만원이하	95	27.8		3)201~300만원이하	112	32.0
	4)301~400만원이하	31	9.1		4)301~400만원이하	48	13.7
	5)401~500만원이하	18	5.2		5)401~500만원이하	28	8.0
	6)501만원 이상	19	5.6		계	350	100
		계	342		100		평균(SD)
	평균(SD)	245.77(165.77)			평균(SD)	253.59(114.61)	

2. 모녀간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의 일반적 경향과 관계

1) 모녀간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의 일반적 경향

모녀간 가사노동의 의식과 수행과정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먼저 가사노동관을 살

펴보면 어머니는 22.32점(3.72/5), 딸은 21.77점(3.63/5)으로 나타나서 5점 척도에서 3점을 중간정도로 본다면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가사노동관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정어머니가 기혼딸에 비하여 더 긍정적인 가사노동관을 보이고 있다.

가사노동 선호도는 어머니는 66.54점(3.33/5), 딸은 64.32점(3.22/5)으로 나타나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보

<표 2> 모녀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의 일반적 경향

(N=352~373)

		친정어머니		기혼딸		
		M	SD	M	SD	
가사 노동의 의식	가사노동관		22.32(3.72) ^a	4.33	21.77(3.63)	4.05
	선 호 도	식생활	16.17(3.23)	3.41	14.96(2.99)	2.96
		의생활	12.48(3.12)	2.79	11.27(2.82)	2.74
		주생활	13.85(3.46)	2.66	12.91(3.23)	2.73
		가족원돌보기	11.12(3.71)	2.09	11.53(3.84)	1.82
		가정경영	13.01(3.25)	2.56	13.79(3.45)	2.67
전체		66.54(3.33)	9.37	64.32(3.22)	9.34	
가사 노동의 수행 과정	능력	식생활	19.60(3.92)	3.29	16.47(3.29)	3.30
		의생활	14.37(3.59)	3.11	12.08(3.02)	2.54
		주생활	13.78(3.45)	3.06	12.18(3.05)	2.86
		가족원돌보기	10.93(3.64)	2.17	10.50(3.50)	2.01
		가정경영	13.18(3.30)	2.88	13.80(3.45)	2.80
	전체		71.99(3.60)	10.56	65.02(3.25)	9.63
	표준	식생활	18.35(3.67)	3.13	16.31(3.26)	3.05
		의생활	13.56(3.39)	2.84	12.05(3.01)	2.60
		주생활	13.28(3.32)	3.14	12.14(3.04)	2.95
		가족원돌보기	10.80(3.60)	2.14	10.87(3.62)	2.02
		가정경영	13.20(3.30)	2.87	13.73(3.44)	2.76
	전체		69.18(3.46)	10.60	65.22(3.26)	10.06
	기기 사용	전기밥솥	3.13	1.10	3.20	1.15
		전자레인지	2.31	1.15	2.78	1.06
		식기세척기	.74	1.04	.89	1.22
세탁기		3.30	.87	3.74	.54	
재봉틀		1.41	1.11	.86	.96	
진공청소기		2.44	1.24	3.07	1.16	
컴퓨터		.87	.80	2.12	1.34	
전체		14.20(2.54)	3.78	16.67(2.98)	3.92	
고용인사용시간		3.86	13.36	3.64	11.9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고용인 여부 *	가정부(숙식)	11	3.0	7	1.9	
	파출부	58	15.8	54	14.5	
	고용안함	298	81.2	312	83.6	
	계	367	100	373	100	

* 고용인여부는 연속변수가 아니므로 빈도수와 백분율을 제시하였음.

a : ()은 5점 환산점수

았을 때 두 집단 모두 가사노동을 중간정도로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관과 같이 친정어머니가 기혼딸에 비하여 가사노동을 더 좋아하고 있다. 가사노동 영역별로는 친정어머니와 기혼딸 모두 가족원 돌보기 영역의 가사노동을 가장 좋아하였다.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것은 모두 의생활 영역이었는데 이는 김외숙(1981,1984), 정미아(1992), 김애련과 채옥희(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친정어머니는 기혼딸보다 의·식·주생활 영역의 가사노동을 대체로 좋아하고, 기혼딸은 친정어머니에 비해 가족원 돌보기와 가정경영 영역의 가사노동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능력의 경우,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사노동 능력이 두 집단 모두 중간 수준인 3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어머니의 경우 가장 높은 능력을 나타낸 영역은 식생활이었던 반면, 기혼딸의 경우는 가족원 돌보기였다. 가정경영 영역을 제외하고는, 친정어머니의 능력이 기혼딸의 능력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가장 낮은 가사노동 능력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친정어머니의 경우는 가정경영, 기혼딸의 경우는 의생활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표준의 경우 친정어머니는 69.18(3.46/5)점으로 65.22(3.26/5)점인 기혼딸에 비해 높았으며, 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중간이상의 표준을 보이고 있었다. 친정어머니는 가사노동 식생활 영역의 표준이 가장 높았고, 기혼딸은 가족원 돌보기 영역의 표준이 가장 높았다. 또한, 가정경영 영역에 있어서 친정어머니에 비해 기혼딸의 표준이 더 높았다. 친정어머니는 가정경영 표준영역, 기혼딸은 의생활 영역의 표준이 가장 낮았다.

가정기기 소유 및 사용에서는 다른 가사노동 의식이나 수행과정과는 달리 딸(16.67점)이 어머니(14.20점)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는데, 이는 딸 세대가 어머니 세대보다 취업주부가 많은 현실을 비취 본다면 취업주부가 가사노동 간소화 방안으로 가정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이승미, 1989)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5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딸과 어머니는 각각 2.98점과 2.54점을 나타내 기기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어머니

와 기혼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는 세탁기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세탁기의 전국 보급율이 1993년 현재 91%로 거의 모든 계층이 유사한 방식으로 세탁을 수행한다고 한 김성희(1996)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사용정도가 가장 낮은 기기는 친정어머니는 식기세척기(.74)였고, 기혼딸은 재봉틀이었다. 전기밥솥과 세탁기는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의 사용정도가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딸의 경우 진공청소기도 자주 사용하는 기기였는데 이에 비해 친정어머니는 가끔 사용하는 정도였다.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의 사용정도의 차이가 큰 기기는 재봉틀과 컴퓨터였다. 재봉틀은 친정어머니의 사용(1.41점)이 기혼딸의 사용(.86)보다 많았고, 컴퓨터는 기혼딸의 사용(2.21점)이 친정어머니의 사용(.87점)보다 월등히 많아서, 이 두가지 가정기기는 어느 정도의 코호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기세척기의 경우는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의 점수가 모두 매우 낮았는데, 이는 식기세척기의 낮은 보급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사고용인 사용여부는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가 비교적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친정어머니의 81.2%와 기혼딸의 83.6%는 가사노동을 위한 고용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어머니의 경우 숙식을 같이하는 가정부를 고용하는 비율은 3.0%이며, 기혼딸은 1.9%로 나타나 점차 가정부를 고용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정연주·문숙재, 1987). 파출부를 고용하는 비율은 어머니 세대가 15.8%로 14.5%인 딸 세대 보다 약간 많았다. 그러나, 가사고용인 사용시간을 보면 두 집단의 사용시간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후에도 직장을 가지는 비율이 딸 세대에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모녀간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의 관계

가사노동 의식과 수행과정이 모녀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수를 구하였다(〈표 3〉). 그 결과, 가사노동 의식과 수행과정 모두에서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상관관

〈표 3〉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과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과의 상관관계

가사노동의 의식			가사노동의 수행과정						
가사노동관	신 호 도		능 렷		표 준		기기사용		고용인 사용시간
.30**	식생활	.32**	식생활	.20**	식생활	.17**	전기밥솥	.34**	.11*
	의생활	.21**	의생활	.10*	의생활	.20**	전자레인지	.25**	
	주생활	.21**	주생활	.18**	주생활	.24**	식기세척기	.38**	
	가족돌보기	.23**	가족돌보기	.23**	가족돌보기	.16**	세탁기	.25**	
	가정경영	.24**	가정경영	.26**	가정경영	.29**	재봉틀	.10*	
	전체	.31**	전체	.21**	전체	.25**	진공청소기	.33**	
						컴퓨터	.31**		
						전체	.39**		

*p<.05, **p<.001

계를 보인 것은 기기사용정도($\gamma = .39$)였으나, 대체로 가사노동 수행과정보다는 가사노동의 의식에서 모녀간의 상관관계가 더 높았다.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가사노동의 수행과정의 가사고용인 사용시간($\gamma = .11$)이었다. 가사노동 수행과정의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모녀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영역은 기기사용정도의 식기세척기($\gamma = .38$)로 나타났다. 반면 가사노동 능력의 의생활영역과 기기사용정도의 재봉틀 사용정도($\gamma = .10$) 모녀간의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관의 경우 상관계수는 $\gamma = .30$ 으로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관이 긍정적일수록 기혼딸의 가사노동관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가사노동관은 평균의 차이도 비교적 적고, 상관관계도 타영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어머니와 딸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사노동 선호도는, 상관계수가 $\gamma = .31$ 로 가사노동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상관계수를 보였는데, 친정어머니가 가사노동을 좋아할수록 기혼딸도 가사노동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식생활의 상관관계가 $\gamma = .32$ 로 가장 높았고 의생활과 주생활의 상관관계가 $\gamma = .21$ 로 가장 낮았으나, 비교적 모든 가사노동영역에서 유사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가사노동 능력은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의 평균차이가 다른 가사노동 의식이나 수행과정에 비해 가장 컸으나, 상관관계는 $\gamma = .21$ 로 나타나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능력이 좋을 수록 기혼딸의 능력도 좋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영역별로는 가정경영의 능력의 상관관계가 $\gamma = .26$ 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생활 영역의 능력의 상관관계가 $\gamma = .10$ 으로 가장 낮았다.

기기사용정도는 모녀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수행과정으로 친정어머니가 가사노동 기기를 많이 소유하고 사용할수록 기혼딸도 가사노동 기기를 많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별로는 식기세척기 사용정도의 상관도가 가장 높았으나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컴퓨터 등의 상관관계도 모두 $\gamma = .30$ 이상이었다. 재봉틀과 컴퓨터는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의 사용정도의 차이가 큰 가정기기였는데, 상관관계에서는 컴퓨터가 높은 평균차에도 불구하고 $\gamma = .31$ 로 비교적 높았던 반면 재봉틀 사용의 상관관계는 $\gamma = .10$ 으로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재봉틀이 점차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가정기기라는 것을 말해주며, 또한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하더라도 의생활 영역에서 옷만들거나 수선, 바느질과 같은 가사노동이 사회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모녀간의 가사노동 세대전달의 영향보다는 세대차이를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재봉틀의 소유와 사용이 적

있던 딸 세대는 의생활에서 어머니 세대보다 가사노동 선호도, 능력, 표준이 낮았다. 반면 컴퓨터의 사용은 식기세척기와 다른 가정기기와는 달리 비교적 교육수준, 직업의 종류, 월소득 등에 영향을 받는 기기라고 볼 때, 컴퓨터 사용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두 세대간의 경제적 자원의 전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사고용인 사용시간은 상관계수가 $\gamma = .11$ 로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친정어머니의 가사고용인 사용시간이 많으면, 기혼딸의 가사고용인 사용시간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볼 때, 모녀간의 가사노동이 세대간 전달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3.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이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이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어머니 세대의 81%, 딸 세대의 84%가 가사고용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고용인 사용 및 시간은 종속변수에서 제외시켰다.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의 변수들이 기혼딸의 기기사용(18%), 가사노동관(13%), 가사노동표준(11%), 가사노동선호도(10%), 가사노동능력(7%)을 7%~18% 설명하고 있었으며 모든 회귀방정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기혼딸의 가사노동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수는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관($\beta = .36$)으로 나타났다. 친정어머니가 가사노동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가질수록 기혼딸도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에 대한 선호도 역시 기혼딸의 가사노동 선호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beta = .28$) 이는 친정어머니가 가사노동을 좋아할수록 딸도 가사노동을 좋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혼딸의 기기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어머니의 기기소유와 사용정도($\beta = .42$)로 어머니가 가정기기를 많이 소유하고 사용할수록 기혼딸도 기기를 많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 변수들은

〈표 4〉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이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									
		가사노동관 (N=360)		가사노동선호도 (N=350)		가사노동능력 (N=353)		가사노동표준 (N=342)		기기사용 (N=371)	
		b	β	b	β	b	β	b	β	b	β
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	가사노동관	.35	.36**	.22	.01	.15	.07	9.99E-02	.04	2.16E-02	.02
	가사노동선호도	-2.24E-02	-.05	.30	.28**	.16	.15*	.21	.19**	1.42E-02	.03
	가사노동능력	5.80E-02	.15	8.06E-02	.09	.20	.22*	.11	.12	-6.70E-03	-.02
	가사노동표준	-4.11E-02	-.11	-9.83E-02	-.11	-.12	-.13	4.40E-02	.05	7.05E-03	.02
	기기사용	-4.70E-02	-.04	-2.83E-02	-.01	.14	.06	8.45E-02	.03	.43	.42**
상수		15.03		41.20		42.96		36.37		9.26	
R ²		.13		.10		.07		.11		.18	
F		9.54**		7.34**		4.70**		7.45**		14.04**	

*p<.05, **p<.001

기혼딸의 기기소유 및 사용정도의 분산을 18%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는 5개 회귀방정식 가운데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기혼딸의 가사노동 능력에서는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에 대한 능력($\beta = .22$)과 선호도($\beta = .15$)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가사노동 능력이 높고, 어머니가 가사노동을 좋아할수록 기혼딸의 가사노동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 변수들은 기혼딸의 가사노동 능력의 분산을 약 7% 설명하고 있다. 기혼딸의 가사노동 표준을 가장 크게 설명하는 변수는 가사노동 선호도($\beta = .19$)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딸의 가사노동 표준에 대한 회귀식이 다른 가사노동의식과 수행과정의 회귀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결과이다. 즉 기혼딸의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을 가장 많이 예측하는 변수가 어머니의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이 아니고 어머니의 가사노동 선호도인 것이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가사노동표준은 딸의 가사노동 표준에 정적인 상관관계($r = .25$)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변수를 같이 투입했을 때 어머니의 표준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선호도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앞으로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 사이의 관계를 좀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모녀의 가사노동 세대전달과정을 알아내는데 유용할 것으로 본다.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의 의식 및 수행과정이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볼 때 어머니의 가사노동의 여러 특성은 딸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인 가사노동이 모녀간에 어떻게 세대전달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는데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정기기사용을 제외한 모든 가사노동의 의식 및 수행과정에서 친정어머니의 점수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아 가사노동의 수행기간의 장단이 가사노

동에 대한 의식이나 수행과정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가사노동의 의식 및 수행과정이나 가사노동 영역별로 차이와 특색을 보였다. 가사노동 선호도의 경우 각 가사노동의 세부영역에 있어서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의 경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좋아하고 싫어하는 가사노동의 영역은 세대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가사노동 영역의 특성이 가사노동에 대한 선호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세대와 관계없이 싫어하는 영역의 가사노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본다는 것은 앞으로의 가사노동의 교육이나 상담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가사노동 능력이나 표준에서는 가사노동의 세부 영역별로 모녀간에 세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어머니 세대에 비하여 딸의 세대에서 가족 돌보기나 가정경영과 같은 관리적 성격의 가사노동 수행과정의 점수가 의·식·주생활 같은 가사작업적 성격의 가사노동 수행과정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한편으로는 친정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족생활주기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로 진전되면서 점차 관리적 측면의 가사노동이 강조되고 있는데서 유래된다고 볼 수 있다.

기기사용정도에서 딸 세대가 어머니 세대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과거에 비해 새로운 가사노동 관련 기기가 많이 등장하였고 소득과 학력 수준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재봉틀의 경우는 어머니 세대가 소유나 사용면에서 딸 세대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의생활 영역의 사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의 가정생활의 특성을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모든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서 모녀간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보아 이는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과 수행과정이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에 세대전달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관계수의 크기로 볼 때, 가정기기사용과 가사노동관이나 가사노동 선호

도와 같은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이 가사노동 능력이 나 가사노동 표준과 같은 수행과정보다는 좀더 세대 전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영역에서는 가사노동 능력 중 의생활 영역, 가정기기 사용 중 재봉틀 소유 및 사용이 다른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의 세부영역에 비하여 아주 낮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의 세대전달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세대전달 가능성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에 대한 확인은 추후의 연구에서 계속 검증되어야 하고 어떤 요인이 이러한 가능성을 결정하는지 분석되어야 된다고 본다.

셋째, 기혼딸의 가사노동관, 가사노동 선호도, 가사노동 능력, 기기사용 정도는 각각 어머니의 가사노동관, 가사노동 선호도, 가사노동 능력, 기기사용 정도에 영향을 받았다. 기혼딸의 가사노동 표준의 경우 어머니의 가사노동 선호도가 영향을 미쳤다. 즉,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은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 변수군에 모두 영향을 받고 있어 어머니의 가사노동이 딸에게로 세대간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혼딸의 가사노동 표준에서와 같이 다른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과정과는 달리 딸의 가사노동 수행과정과 동일한 어머니의 표준의 영향력이 없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세대전달 과정을 더욱 정교히 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과 관련된 실천적 측면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어머니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이나 수행방식이 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가사노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같은 형식적 교육이나 어머니의 가정교육과 같은 비형식적 교육을 통하여 이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됨으로써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가사노동을 좋아하는 태도가 형성되고 가사수행 능력도 좋아져서 미래 자신이 가사노동의 담당자가 되었을 때 좀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사노동을 인식

하고 수행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친정어머니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이 기혼딸의 가사노동 의식 및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과거에 모녀가 가사노동을 같이 수행할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이나 수행능력 등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전달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거의 가사노동 분담경험과 가사노동 참여시간과 같은 관련 변수를 알아본다면 더 정교한 가사노동의 세대전달 과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주·서병숙·최보가(1968). 생활시간 관리의 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6, pp.133~141.
- 김경숙·이정우(1993).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1(3), pp. 29~46.
- _____ (1995). 취업주부의 객관적 자원, 가정관리 능력 및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pp. 1~11.
- 김성희(1996). 가정기기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화-현대과학기술에 의해 생산된 가정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애련·채옥희(1996). 어머니와 딸의 가사노동태도.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 17집, pp. 153~166.
- 김연화·이정우(1987). 도시주부의 가치관과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pp. 231~251.
- 김외숙(1981).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I). *대한가정학회지* 19(4), pp.55~64.
- _____ (1984).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II).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제 3집, pp.679~702.
- 김재은(1974). *한국가족심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 박신규(1992). 딸의 체험을 통해 본 모녀관계의 성격

- 과 변화 - 30대 전문직 여성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인경(1986).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숙·조필교(1976). 가족성원간 가사분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4), pp.105~117.
- 서지원(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취업지속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창원·이기영(1984). 주부의 가사노동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제 9권. pp. 23~41.
- 안영희(1977). 주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경상대 논문집, 16집. pp. 19~26.
- 유영주(1977).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 수행상의 문제-서울시 여교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가정대 논문집, 제 2권. pp. 1~16.
- _____ (1985). 신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유영주·김경신·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윤복자(1975).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13(2), pp. 59~77.
- 윤숙현(1997).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8).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 한국가정학회지 1(1), pp. 14~26.
- 이기숙(1982). 주부의 가사노동 선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적 변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0(4), pp. 125~132.
-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길표·주영애(1992). 전통사회 여성의 가사작업관에 관한 일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 제 6집. pp. 97~114.
- 이미선(1995). 전문·사무직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관리방안 및 가사노동 관리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1992). 도시주부의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에 관한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래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 11집. pp.255~288.
- 이은주(1991).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관련요인고찰 -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수(1984). 대학생의 생활행동의 시간적 분석-가사노동의 기여도-. 대한가정학회지 22(1), pp. 103~132.
- 이정수·고정애(1985). 가족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 대도시와 소도시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3(2), pp.67~80.
- 임정빈·김명희(1984).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주부의 의식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 장명옥(1976). 우리나라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장명옥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서울대출판부.
- 정미아(1992). 도시 신혼기 주부의 가사노동 선호도와 수행정도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연주·문순재(1987). 도시 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식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pp. 121~143.
- 정영금(1989).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병은·박성연·유은희·이정순·류명희·이숙·김명희·최혜경·박용임(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pp. 86~93.
-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필교(1977). 가사노동 의식실태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지, 제 19집. pp. 147~156.
- 주명자·임양순(1992).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식생활관리 능력에 관한 실태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5(1), pp. 133~141.
- 지금수(1990). 어머니와 미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관

- 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pp.155~176.
- _____ (1994).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pp. 161~170.
- 지금수·계선자(1993). 모녀의 가정자원관리 유형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 pp. 63~74.
- 지영숙·이영호·송현애(1995). 생활문화의 이해-현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한정희·최동숙(1994). 중·고등학생의 가정생활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7(1). pp.11~27.
- 한경미(1987).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광주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urr, W.R., Day, R.D., & Bahr, K.S.(1993). Family Science. CA : Wadsworth, Inc. c/o. 최연실의 5인 옮김(1995). 버어 외 2인 지음. 새로보는 가족관계학. 서울 : 도서출판 하우.
- Millar, R. L.(1961). Home management pattern of three gener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53(2). pp.95~99.
- Robinson, J.P & Milkie, M.A.(1998). Back to the Basics : Trends in and role determinants of women's attitudes toward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pp.205~218.
- Troll, I., & Bengston, V.L.(1979). Generation in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1). pp.127~161.
- Walker, K.E. & Woods, M.E.(1976). Time use :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Wheeler, C.L.(1984). Factors related to household and child care task responsibility of spouses in Houston, Texa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8. pp. 101~119.
- 大森和子·好本照子·阿部和子·伊藤ヤツ·天野寛子(1981). 家事労働. 光生館.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서 재인용.